‘남녀고용평등주간’에 본 광주·전남 실태

광주지방노동청 설문조사

직장 성차별 男-능력탓 女-관습탓

여성 12.6% “성희롱 피해 경험”

34.8% “고용평등법 효과 없어”

직장 내 남녀 차별의 이유로 남성은 여성의 능력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여성은 직장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들의 12.6%는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광주지방노동청이 광주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월3일~7일)에 맞춰 광주의 직장인 15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남성의 33.3%는 ‘여성직원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사회적 관습과 구조’(26.7%) ‘높은 가사·육아 비중’(13.3%)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6.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의 31.6%는 ‘직장 내의 관행 및 분위기’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또 ‘사회적 관습과 구조’(21.1%)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19.3%)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능력과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은 5.3%에 불과했다. ‘남녀 차별없이 보직이 부여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81.1%가 ‘매우 혹은 대체로 잘 지켜짐’이라고 답변했으나, 여성은 68.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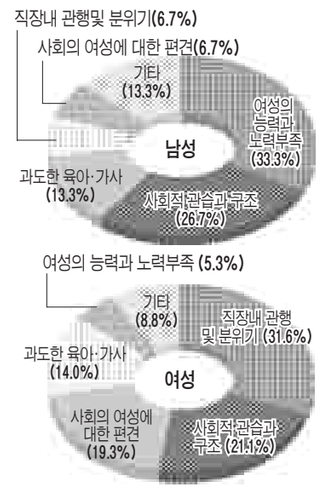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여성의 34.8%는 ‘법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인으로 ▲법에 대한 홍보 미약(32.6%)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이 알려져 있지 않다(27.9%) 등을 꼽았다. 출산·육아 휴가의 경우 여성의 31.9%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빈도’를 물은 항목에선, 여성의 경우 ▲매우 많다 0.8% ▲많은 편이다 1.7% ▲조금 있는 편이다 10.1% 등, 전체의 12.6%가 성희롱이 상존함을 내비쳤다. 전혀 없다는 비율은 87.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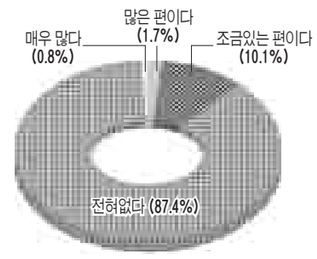
하지만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서는 남녀 59%가 ‘없다’고 답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98.4%)은 ‘인식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저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며 “직장 내 남녀평등을 이뤄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남녀 직장인이 생각하는 여성의 직장내 차별이유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빈도(여성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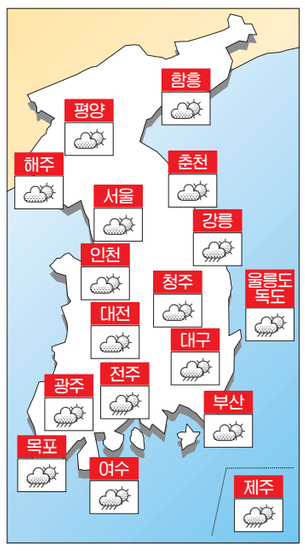


포근한 ‘식목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쪽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4월 5일 (음 3월 8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온뒤 갬	9~17℃
목 포	흐리고 비온뒤 갬	9~15℃
여 수	흐리고 비온뒤 갬	10~16℃
완 도	흐리고 비온뒤 갬	9~16℃
구 례	흐리고 비온뒤 갬	7~17℃
해 남	흐리고 비온뒤 갬	9~16℃
장 흥	흐리고 비온뒤 갬	8~17℃
고 흥	흐리고 비온뒤 갬	8~17℃
순 천	흐리고 비온뒤 갬	8~17℃
영 광	흐리고 비온뒤 갬	8~15℃
진 도	흐리고 비온뒤 갬	9~16℃
전 주	흐리고 비온뒤 갬	8~17℃
남 원	흐리고 비온뒤 갬	8~18℃
정 읍	흐리고 비온뒤 갬	8~1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동풍 파고 1.0~3.0m
먼바다=남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동풍 파고 1.0~3.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7:12 18:47 썰물 12:51 --:--
여 수 밀물 01:42 13:02 썰물 08:06 20:15

▲해뜸 06:15 ▲해짐 18:57 ▲달뜸 10:58 ▲달짐 01: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 씨						
최저/최고	5/16	5/18	6/19	5/21	7/19	9/15

멘토-멘티 상견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줄 조선대생 학습 도우미(멘토) 111명과 이들의 도움을 받을 광주 서부교육청 관내 13개 중학교 학생(멘티) 281명이 4일 오후 광주 무진중 체육관에서 상견례를 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2회씩 국어·수학·영어·과학·한자 과목 등을 멘티들에게 지도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공의료기관 밥값 부풀리기

원가보다 2배나 높아

경실련 “평균 2,500원 비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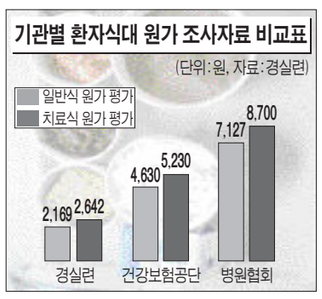
국립 병원·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식대가 크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입원환자 식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경실련이 조사한 것보다 평균 2천500원 가량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표〉

경실련에 따르면 2월17일~3월17일 전남 등 전국 12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일반식은 평균 1천830원, 치료식은 2천588원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용역업체 12곳의 식대원가는 일반식 2천508원, 치료식 2천69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1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식대원가(일반식 4천620원, 치료식 5천230원)보다 2배 싸며 병원협회가 제시한 원가(일반식 7천127원, 치료식 8천700원)보다 3배 가량 저렴했다.

경실련은 6월부터 적용되는 식대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의 식대원가를 근거로 제시한 식대 기본가격 3천390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3천390원의 기본가격에 설정한 2천290원의 가산항목이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여지가 없는 기본옵션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병원의 한끼 식사를 5천68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환자 식대 수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되는 환자식대 상승 압력도 함께 발생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해외 복권사기단 주의!

거액 당첨 미끼 가입비 챙겨

국가정보원은 4일 최근 해외 복권사기단이 거액의 복권 당첨을 미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복권사기단이 로또 복권 당첨을 미끼로 내국인에게 우편이나 e-메일을 보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 우편함 주소지를 갖고 있는 복권 사기단이 ‘Australian Lotto 6/45 Global Processing Centre’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한국을 비롯,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복권 사기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Australian Lotto 6/45’의 밴쿠버 지역 대리인으로 가장, 최고 1억4천만 달러의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권 관계자는 “이 사기단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무차별적으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발송, 회원 가입 신청을 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중학생 문장 이해력 세계 1위

홍콩 중문대교수 43國 조사

한국 중학생들의 문장 이해능력이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홍콩 중문대 캐서린 맥브라이드 교수가 전세계 43개국의 15세 중학생 19만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방식에 따라 독서 능력을 비교한 결과, 한편의 문장을 읽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非文解者)’의 비율이 한국은 1.2%(남학생 1.5%, 여학생 0.8%)로 43개국중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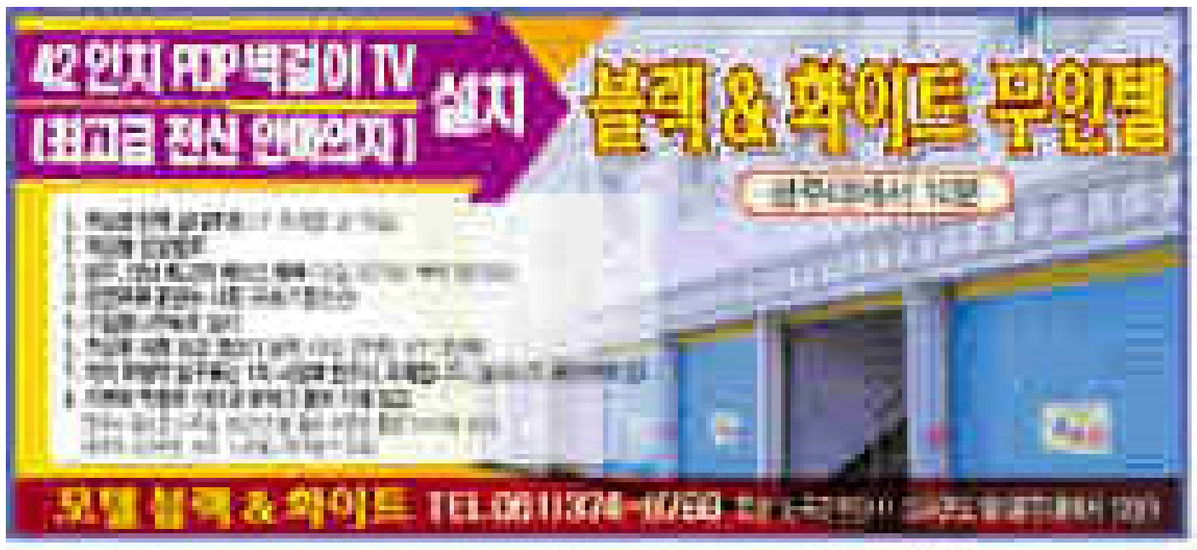
비문해자의 비율은 한국에 이어 핀란드(1.5%), 네덜란드(1.9%), 캐나다(1.9%), 홍콩(2.7%) 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능력 비교에선 한국 중학생들이 525점(1천점 만점)으로 8위에 올랐다. 547점을 받은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순이었으며 영국과 일본은 9, 10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폐유 찌꺼기’ 라면

경찰, 전면수사 나서

N사 제품의 라면에서 폐유 찌꺼기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4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은 이날 라면을 회수해 면과 양념수프 등에 묻은 폐유 찌꺼기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라면 제조회사 측은 수프를 만드는 공정의 기계에서 식용 윤활유 기름때가 수프 봉지에 묻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폐유 찌꺼기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모(35)씨는 지난 3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N사 제품의 라면 5개 가운데 1개에서 면과 양념 수프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커 먼 폐유가 묻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